

“왜색불교는 빈약한 주체성의 결과”

한상길 연구교수, 日 ‘일본사상사’에 한국인 최초 논문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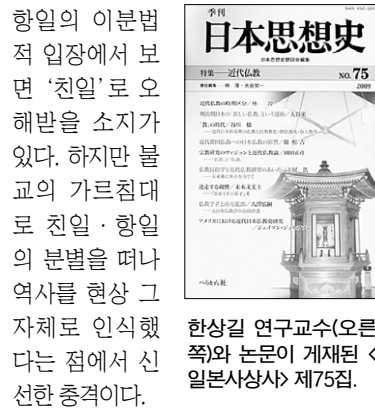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반백년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 곳곳에서는 왜색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불교도 마찬가지. 근 현대의 일부 선지식을 비롯해 불교의례·사상·문화 어느 분야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한상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일본의 대중학술지인 계간 <일본사상사>에 기고한 논문에서 근대 한국불교와 일본불교의 관계를 정리했다. 특히 한 연구교수의 논문은 한국인로는 처음으로 계간<일본사상사>(제75집)에 논문이 게재됐다.

한상길 연구교수는 기고논문 ‘근대 한국불교에 미친 일본불교의 영향(近代韓國仏教に与えた日本仏教の影響)’에서 “근대에서 일본불교가 한국불교에 깊숙이 침투해 자주적 민족불교 수립을 저해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정략적이고 적극적인 포교와 한국불교의 빈약한 주체성이 빚어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국 불교사에서 근대는 1870~1945년까지를 가리킨다. 19세기말은 내적으로 조선 후기 불교의 새로운 부흥 기운이 싹트고 외적으로는 개항을 계기로 일본불교가 해외포교를 시작한 시기이다.

근대불교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지난 10여 년간 일본 종파의 포교와 불교계의 변화, 사찰령의 실제와 의미, 제국주의 불교정책 등 근대불교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시도됐지만 결국 ‘친일과 항일’ 문제로 귀결됐다. 한상길 연구교수의 논문은 친일과



한상길 연구교수(오른쪽)와 논문이 게재된 <일본사상사> 제75집.



포교를 시작하면서 공통적으로 내세운 명분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자국민들을 포교·교화한다는 이유였다”면서 “이는 허울뿐으로 실제로는 국가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를 구축하는데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구교수는 “한국불교가 근대불교로의 전환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불교의 적극적인 우호적인 접근이 쉽게 동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했다. 오랜 역불정착의 결과 교단은 사라졌고, 승가는 종교인으로서의 위상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상길 연구교수는 “도성출입마저 금지됐던 암울한 현실에서 일본 불교의 조직적인 교단제와 승려의 공적 신분, 자유로운 종교활동 등은 선망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연구교수는 “당시 한국인의 눈에 비친 일본불교는 종교적 사명을 지니고 선의를 베푸는 고마운 시혜자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동인, 탁정식 등 정토진종의 승려가 된 개화승이 생겨나면서 1896년 7월에는 한국과 일본 승려가 경성에서 무차대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법회를 주관한 이능화는 “간혹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기뻐하는 사람들은 ‘조선의 승려는 수백 년 동안 문외한의 신세였는데 오늘에 와서 비로소 구름을 타고서 하늘을 바라보게 됐으니 이로써 불일(佛日)이 다시 빛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기록했다.

한상길 연구교수는 “그간의 여러 연구에서 일본불교의 활동목적을 일관되게 제국주의적 침탈이라 비판했으나, 개화가 일본불교에 대한 당시의 인식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고 주장했다.

한 연구교수는 “19세기말 격동의 시대를 살며 불교의 부흥을 간절히 원했던 선조들에게 일본불교는 새로운 기회였고 발전의 모델이었다”라고 강조했다.

1911년 제정된 사찰령은 일본이 사찰과 승려, 불교단체 등 한국불교를 지배하기 위해 마련한 법적기준이었다. 조선총독부는 한국의 대표 종교인 불교가 식민정부에 대한 정신적 저항의 온상이 될 것을 우려해 종교를 규제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 명칭을 왜 ‘불교법령’이나 ‘불교관리법’이 아니라 ‘사찰의 법령’인 사찰령이라고 했을까?

한상길 연구교수는 “사찰령이라 이름한데는 한국불교를 바라보는 일본의 기본적인 시각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즉, 종교와 신앙으로서의 불교가 아니라 식민지 통치 대상으

해인사 교구 문화재 모음집 발간 조계종 최초... 성보문화재 관리 ‘새 전형’

조계종 최초로 특정교구의 문화재가 한 권의 책자로 정리돼, 성보문화재 관리의 새로운 전형이 되고 있다.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상 <해인사 본·말사 국가 및 지방 지정 문화재 모음집> 중.

해인사성보박물관(관장 관암)은 최근 해인사 본·말사의 성보목록에 기재된 유물 중 국가 및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유물을 모은 책, <해인사 본·말사 국가 및 지방 지정문화재 모음집>을 펴냈다.

책에는 교구본사인 해인사(합천지역)를 비롯해 청곡사(진주 지역), 벽속사(함양지역), 대원사

(산청지역), 심우사(거창지역), 장흥사(함안지역) 등 조계종 제12교구 내 30개 본·말사에 소장된 문화재 104건이 지역별·사찰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수록됐다.

관암 스님은 “모두가 소중한 자연·문화유산이지만 그 우선 순위가 있기 마련”이라면서 “합천 국가 및 지방 지정문화재 모음집이 소장한 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해 도록을 편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반출문화재 환수 네트워크 구성 이천5층석탑환수위 ‘민간환수위 교류회’ 열어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해 간 외교장각 도서 반환을 요청하는 행 정소송이 프랑스 행정법원에서 각된 날, 해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 시민활동가와 민간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결의를 다졌다.

이천5층석탑환수위원회는 1월 6일 이천 설봉공원 내 월전미술관 세미나실에서 ‘국의 소재 우리 문화재 민간환수위원회 교류·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천5층석탑환수 위원회를 비롯해 진주 연지사 동종 반환 국민행동, 조선왕실의례 환수위원회, ‘강희맹(姜希孟)의 독조도(獨釣圖) 환수운동을 벌이는 시흥 문화원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이천 출신 재일교포 김창진(67)씨가 1915년 일본으로 약탈돼 도쿄 우라나호텔 내 방치된 이천 5층석탑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시작했다.

김씨는 “일본이 약탈해 갔던 중요 문화재가 최근까지 국외에 반환된 사례가 25건에 이른다”면서 “국민의 힘을 모아 국보급 가치를 지닌 이천5층석탑을 반드시 되찾아야 하

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진왜란 당시 수탈당한 경남 진주 연지사종과 조선왕실의례, 독조도 등 국외 반출 문화재 환수를 위한 각 단체의 활동이 소개됐다.

이날 참여단체들은 반출문화재 환수를 위해 국내·외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편, 9월경 약탈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열기로 합의했다.

한편, 문화연대(공동위원장 강내희·중앙대 교수, 김명진·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외규장각 도서가 위원회, ‘강희맹(姜希孟)의 독조도(獨釣圖) 환수운동을 벌이는 시흥 문화원이 참석했다.

문화연대 황평우 유산위원장은 “환수를 검토 중이나 개인 모금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와 기업의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민간 차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일 때 정부가 나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신흥사 동종 등 도문화재 지정 전남도 구립 31일 발표

전남도(도지사 박준영)는 “장흥 신흥사 소장 정방사명 동종 등 유형문화재 2건과 유형문화재 1건 등을 새로 지정했다”고 구립 31일 발표했다. 전남도 문화재 제304호로 지정된 신흥사 소장 ‘해남 정방사명 동종’은 1751년(영조 27)에 조성됐다. 조선 후기 문화재이지만 고려시대 결

작인 보물 제88호 탑산사종과 상당한 친연성이 느껴진다. 다만, 신흥사 동종은 고려 종에 비해 구경이 넓고 상대와 유곽 사이에 범자문이 있으며 유곽사이에 보살입상이 있다. 특히 단아한 몸체와 정교한 문양 등은 조선종으로서의 보기 드문 수작으로 평가된다.

종을 제작한 도편수 윤취오와 윤광형 등은 사장(私印) 계열의 주종장으로서 17~18세기에 여러 종을 만들었던 집안의 장인으로 보인다. 이들은 장종 장편면과 장편면 지역에서 17~18세기 무렵 꾸준히 주종을 조성해 수준 높은 동종과 금고 등을 생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장흥 신흥사 동종은 작품으로 한국 금속공예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높아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전통문화연수원 교육생 모집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원장 임덕수)은 문화재 수리·복원 전문인 양성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대학(대학원) 관련학과 전공 졸업생(201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및 문화재 수리 기술 및 기능자격 소유자 또는 문화재 수리 등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이다. 모집은 ‘전통문화 모사 및 지류·섬유 문화재 수리·복원’과 ‘전통목질공예’ 분야로 나뉘어 1월 18~22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교육생 모집요강은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ttc.nuch.ac.kr) 참조. 조동섭 기자

대각교단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입종공고

본 종 종정예하 석가산대종사께서는 31독립운동의 민족대표인 용성조사의 은, 법, 강, 율 상좌이며 11.3 광주 학생독립운동의 학생대표였던 봉암선사로 부터 유일하게 은, 법, 강, 율을 이어받은 상수제자이시며 가이산해 인사와 금강산장안사의 양대 강맥을 전한 대각백입니다.

또한 대운사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한국불교율맥의 원조인 조선불교종흥를 제6조인 용성조사로부터 유일하게 전계율연계법을 전수받은 제7조 봉암선사에게 제8조로 전계율연계법을 전수받은 한국불교율맥의 전통 계승자이시기도 하며 가산대종사께서는 특히 600여년전에 단절되었던 점찰함회법을 종흥해 모악산금산사, 팔공산동화사, 속리산법주사에 전수해 점찰종흥조가 되어 이 시대의 선지식이라 하였습니다.

본 종 임원 종도 들은 종정예하 중심으로 전통법맥과 율맥을 잇고자 아래와 같이 종도 모집을 하고자 합니다.

- ◆ 본 종은 종정예하의 전통 법맥을 유지 계승하여 종도화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 본 종에 입종하시는 스님께서는 재적종단의 승납과법계를 인정하셨습니다.
- ◆ 본 종에 입종하여 건당하실 스님께서는 법계종서를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종에 입종하시는 법사님과 불교대학 2년이상 수료하신 분의 법사 신칭을 받습니다.
- ◆ 본 종에서는 개인사찰의 사유재산을 종법에 의거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찰등록시 1년 분담금 없음)
- ◆ 본 종 종정예하 추대식에 동참해주신 각 종단 종정예하 및 총무원장 큰스님들께 지면으로 통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종도들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각교단 대한불교전통조계종이 한국불교의 종흥에 앞장서서 불조의 원맥을 이어 나갈 것을 불타전에 기원 드립니다.

대각교단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임원 및 종도일동

석가어래부촉법제 77세 조선불교종흥를 제 8조 종정 예하 태화당 석가산 대종사

■ 종정예하주석사찰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신희로 484 원운사 ■ 총무원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1122번지 대승사
■ 접수문의 : 053)325-5288, 053)325-0400 / 팩스 053)325-4848

大覺教團 僧伽大學院 開設 승정(宗師)학과 학인모집

본 원에서 제1기 승정(大宗師, 宗師) 風光教育을 실시하게 됨을 공고하며 교육기간 동안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僧正學科

1. 僧正之 儀法(전법계승, 오도승, 등)
2. 僧正之 法行(중사의 행위와, 등)
3. 儀式之 法行(점안, 천도, 수계, 건당, 등)
4. 僧正之 法物(불자, 여의, 무척, 주장자, 등)
5. 点察(梅法 傳授 (600年間 단절된 점찰법 再現))
6. 宗務行政.

僧正學은 宗師가 지니야 할 禪과 教와 儀式行政, 品行 등 高度의 法상을 宣揚하고자 하는데 있음.

1. 입학자격 : 각 종단 종정, 총무원장 및 대승정(대승자) 승정(중사)
2. 구비서류 : 본원 소정의 입학 신청서 1통, 법계증서본 1매, 사진 2매.
※ 3개월 후 졸업시 종사법물 증정 및 졸업장 수여.
※ 법계증 없는 분은 각 종단 총무원장 발행 재직증명서 1통

▶ 수강기간 : 3개월 기간 중 5회만 실시(1일 5시간 교육)
▶ 개강일시 : 불기 2554년 1월 21일 오전 10시 30분.
개원 입교식 및 1차 교육 (항시 점심공양제공)
▶ 수강장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594번지
대각교단 승가대학원 중앙연수원 ☎ 043)233-0924
▶ 접수처 : ☎ 053)325-5288, 053)325-0400 대승사 불교대학
팩스 053)325-4848, 핸드폰 010-3900-3050

大覺教團 僧伽大學院 院長 圓堂 大宗師